



1. 2003 상해국제산업박람회가 열린 상해국제엑스포센터 입구  
 2. 전시장 입구에서 관람객에게 인사하는 로봇. 이번 박람회에는 다양한 기능의 로봇이 전시됐다  
 3. 최근 성공적인 우주여행을 마친 '선저우 5호'와 우주인 '양리웨이'의 대형사진

## 중국의 정보기술과 산업기술이 한 자리에 모인 최대 종합 산업박람회

협회는 지난 11월 6일부터 6일간 중국 상해시 소재 국제엑스포센터에서 열린 '2003 상해국제산업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는 중국 산업 전체를 총 망라한 중국 최대의 종합 박람회로, 매년 11월 첫째주 목요일에 열리며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다.

전시장은 모두 17개국에서 참여한 2600여개의 부스가 설치돼 있었다. 첫날 10만명의 관람객이 몰려들었고, 그 중 비즈니스를 위한 전문 관람객만 4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행사기관 내내 관람객의 열기가 뜨거웠다.

중국인들은 최근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5호'의 성공적인 우

주여행으로 자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 이번 전시회장에 공개된 '선저우 5호'와 10일 중국 최초 우주인이 된 양리웨이(楊利偉)의 방문 이벤트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다.

전시회는 종합박람회라는 명칭답게 산업일반 장비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능의 로봇, 인공지능 장비, 첨단 교통수단과 중국 최대 관심사인 SARS예방 및 진단제품 등이 전시됐다.

박람회장은 크게 산업장비관, 정보통신관, 운송장비관, 의학 및 제약산업관, 과학기술관 등 5가지 섹터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 중 한국관은 IT 및 전자정보 산업장비업체가 모여있는 정보통신관에 속해 있었는데,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4. 한국관 구봉정보기술의 웹카메라를 관람객들은 직접 만져보고 사용해보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5. 한국관 마고의 전자파차단기에 관한 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문의하는 관람객들  
 6. 최첨단 기술과 제품들을 실행해보는 참관객들  
 7. 의약품 전시관에서는 SARS 예방 및 진단제품 등이 전시됐다  
 8. 국제적인 전시회답게 상당중인 해외 바이어들도 눈에 띄었다  
 9. 민족 고유복장을 한 도우미들이 전시제품 설명을 하고 있다

주최측 관계자는 “이번 상해국제산업박람회는 첨단기술 및 정보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한국관이 속해있는 2호관은 특히 주목을 받았다”고 말했다.

### 한국관, 해외바이어 및 관람객들로부터 호응

이번 전시회에 한국관은 한남하이텍(대표 최만목), 에이엠티(대표 정병국), 마고(대표 김만춘), 디자인메카(대표 편영식), 엠씨텍(대표 이상용), 구봉정보기술(대표 박무희), 굿엠(대표 김준섭), 동원텔레콤(대표 정재용), 크래프트테크놀로지(대표 박신규), 우성기계(대표 한운원) 등 IT를 비롯한 다양한 하이테크 기업 10개사가 참가해 많은 성과를 올렸다.

특히, 초음파 마이크로 버니싱 장치업체인 디자인메카는 전시회

기간인 지난 8일 중국 칭화대 국제기술교류센터와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하여 향후 디자인메카의 기술을 중국에 이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능성냉장고인 쌀냉장고라는 독특한 아이템을 선보인 굿엠과 웹카메라 제조업체인 구봉정보기술은 현지 바이어와 관람객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전시에 참여한 구봉정보기술 박무희 대표는 “최근 북경에 지사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중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던 중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다”며 “관람객과 바이어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의료용 침대업체인 엠씨텍은 제품에 관심을 갖고 당장 구매를 원하는 관람객뿐 아니라 중국 현지의 의료침대업체와 대리점 계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10



12



11



13

- 10. 협회 이정민 팀장이 중국중앙국영방송인 CC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11. 많은 인파가 몰린 한국관 전경과 취재하는 기자들
- 12. 상해시 푸둥신구 경제개발구 관계자와 우리 벤처기업의 중국진출을 위한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13. 상해 유관기관 실무자와 상해현지 한국기업인들을 초청하여 INKE상해지부 설립을 위한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 협회, 양국 비즈니스 교류를 위한 다양한 활동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은 현지 언론의 취재열기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중국 국영중앙방송인 CCTV와 상해지역신문인 신민일보 등 여러 언론사는 한국 기업을 취재하고 인터뷰를 요청했다. 협회에서도 현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참가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협회는 상해시 INKE지부 설립을 위해 공식 만찬을 준비하고, 중국 상해시 유관기관 실무자와 상해지역 한국기업가 및 전시회 참가자들을 초청하여 상호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협회는 최근 한중 양국사이의 활발한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고 IT 등 하이테크 산업의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한양대 상해IT비즈니스센터’와 ‘상해시 푸둥신구 외상투자기업협회’와 지난 10일과 11일에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IT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은 기술발전 속도가 놀라울 뿐 아니라, 적극적인 국제기술교류를 위해 대규모의 박람회를 개최하고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만큼 정부 관계자 및 일반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중국은 초기 시장 진출의 장벽이 어느 나라보다 높다고 하지만 그 거대한 시장의 잠재성이라는 매력을 간과할 수 없다. 협회는 우리 벤처기업의 중국진출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서비스와 정보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 ITPC 국제전시부 쓰지엔페이(施建培)



상해국제산업박람회를 주관한 ITPC 관계자인 쓰지엔페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람회 전반에 관한 내용과 한국 벤처기업의 중국진출에 관한 소견을 묻는 자리를 가졌다.

Q :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상해국제산업박람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A : 이번 '상해국제산업박람회'는 지난 해 7가지에서 5가지 산업품목으로 줄었다. 특히, 신기술과 정보기술에 초점을 맞춰 주제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또한, 외국 기업과 해외 바이어들의 참여비중을 높여 국제적 박람회로 성장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전시에 머무르지 않고 비즈니스 교류가 활발했다는 특징이 있다.

Q : ITPC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 ITPC는 International Trade Promotion Co., Ltd의 약자로 포괄적이고 다양한 무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특히, 국내외 전시

와 수출상담회, 세미나, 비즈니스 정보 제공, 수출입 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Q : ITPC가 중국 진출을 원하는 한국 벤처기업을 위해 어떤 역할이 가능한가?

A :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이번에 개최된 상해국제산업박람회와 같은 전시회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고 알리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1:1상담회와 같은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서로 관심을 갖는 한국 벤처기업과 중국기업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 ITPC는 그 동안 축적된 8만여 개의 바이어 DB를 구축하고 있어 이러한 맞춤형서비스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Q : 마지막으로 중국의 어떤 분야에 한국기업의 진출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듣고싶다.

A :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자면, 예전에는 한국기업의 가전제품과 섬유제품이 주요 품목이었으나 앞으로는 IT업종과 게임 등의 엔터테인먼트 쪽의 전망이 밝다고 생각한다. IT와 게임은 하이테크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이다.



## 칭화대 국가기술이전센터 니에쯔친(聂志勤)박사



중국의 명문 과학기술 대학인 칭화대 국가기술이전센터 니에쯔친박사는 한국관 참여업체인 디자인메카와의 업무제휴를 맺었다. 벤처기업의 대표단체인 KOVA에

관심을 표명한 박사와 인터뷰시간을 가졌다.

Q : 칭화대 국가기술이전센터에 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 칭화대 국가기술이전센터는 해외 선진기술을 들여와 중국에 소개하고 기술이전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에서 국가기술이전을 담당하는 공인된 기관은 6개가 있다. 칭화대 국가기술이전

센터는 그 중 하나다.

Q : 한국기업인 디자인메카와 업무협약은 어떤 내용인가?

A : 디자인메카의 가공기술은 국제적으로도 선진기술이다. 특히, 중국 화동지구는 금속가공 정밀기계에 관한 수요가 높다. 디자인메카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중국내 기술이 들어오는 절차와 중국시장 개척을 도울 것이다.

Q : 벤처기업에 관해 알고 있는가?

A : 벤처기업은 중국 내에서도 신흥산업으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고 있다는 데 관심이 가고,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을 대표하는 중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향후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